

정수진 연구원

요약

2023년 미국 PRT 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4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대형 계약 체결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확정급여형(DB) 연금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연금 지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PRT 계약을 통해 연금 위험의 일부(바이인) 또는 전부(바이아웃)를 보험회사에 이전시킴. 미국 PRT 시장의 급성장 요인으로는 연금지급보증공사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과 글로벌 증시 회복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 등이 있음

- 2023년 미국 PRT(Pension Risk Transfer; 연금 리스크 이전) 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450억 달러로 추정되며, 계속되는 대형 계약 체결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 PRT 시장의 2023년 연간 규모는 약 450억 달러로, 이는 2022년 519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¹⁾이며, 상반기에는 289건의 거래로 총 224억 달러의 규모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²⁾
 - 미국 프루덴셜 생명보험회사(Prudential Financial)는 2024년 1분기에 쉘 USA(Shell USA)와 49억 달러 규모의 PRT 계약을 체결하였으며,³⁾ 대체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Brookfield)는 미국에서 큰 규모의 PRT 사업을 구축하고 있음⁴⁾
 - 브룩필드는 지난 몇 년간 아메리칸 내셔널(American National)과 아르고(Argo) 등의 보험회사들을 인수해왔음
 - 전문가들은 2024년 1분기의 PRT 규모는 150억 달러로 추정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PRT 시장은 계속 발전하여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⁵⁾
- 확정급여형(DB) 연금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연금 지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PRT 계약을 통해 연금 위험을 보험회사에 이전시킴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과 급여에 따라 퇴직 후 평생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미리 정하는 연금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투자 수익이 확정된 퇴직금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을 부담함

1) Legal & General America(2024), "Pension Risk Transfer Monitor"

2) Pensions & Investments(2023), "U.S. PRT activity notches all-time high for first 6 months of a year - AON"

3) insuranceERM(2024), "Prudential Financial seals \$4.9bn bulk annuity deal with Shell USA"

4) insuranceERM(2024), "Brookfield aims for top tier in US annuity market, confirms UK PRT interest"

5) Institutional Investor(2023), "Why the PRT Market Is Thriving"; Legal & General America(2024), "Pension Risk Transfer Monitor"

- 연금 가입자가 예상보다 더 오래 살거나(장수 리스크), 자금의 예상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투자 리스크), 예상치 못한 이자율의 변화로 인해 비용 및 자기에 변동이 발생(이자율 리스크)할 위험이 있음⁶⁾
- 고용주는 연금 위험 이전을 통해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생명보험회사로 이전시킴으로써 연금 위험을 제거하여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음
 - 연금 위험을 이전시킴과 동시에 연금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보험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보장하여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외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음⁷⁾

○ PRT 거래 유형에는 위험의 일부 이전(바이인, Buy-in)과 전부 이전(바이아웃, Buyout)이 있음⁸⁾

- 바이인은 고용주가 연금 지급의무를 유지하면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연금상품을 구입하는 계약으로, 연금 부채는 고용주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래를 말함
 - 보험회사가 고용주에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이를 연금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연금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PBGC)에 보험료도 계속 납부함
 - 연금지급보증공사는 미국 민간 기업 근로자의 확정급여형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고용주는 가입자당 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⁹⁾
- 바이아웃은 보험회사가 고용주의 연금 지급을 직접 보장하는 계약으로, 연금 부채 및 연금 가입자에 대한 의무는 보험회사로 완전히 이전되며, 보험회사가 연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래를 말함

○ 미국 PRT 시장의 급성장 요인으로는 연금지급보증공사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과 글로벌 증시 회복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 등이 있음

- 고용주가 연금지급보증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바이아웃을 통해 이 비용을 제거하려는 유인이 커짐¹⁰⁾
 - 바이인은 고용주의 연금지급보증공사 보험료 납부가 유지되기 때문에 PRT의 증가는 주로 바이아웃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2023년 글로벌 증시가 회복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좋아지며 PRT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¹¹⁾
 - 2023년 12월 기준 미국 기업 확정급여형 연금의 평균 자금 조달 비율은 104.1%로 11월의 103.4%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늘어난 자금으로 연금 위험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통해 PR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임¹²⁾

6) NAIC(2024)(<https://content.naic.org/cipr-topics/pension-risk-transfer>)

7) Pensions & Investments, "THE PLAN SPONSOR'S GUIDE TO PENSION RISK TRANSFER"

8) 보험연구원(2020), "해외 장수리스크 이전거래 시장 동향"; Pensions & Investments, "THE PLAN SPONSOR'S GUIDE TO PENSION RISK TRANSFER"

9) Americal Retirement Association(<https://www.usaretirement.org/retirement-issues/pbgc-premiums>)

10) Life Risk News(2024), "Still Plenty of Capacity for Growth in Robust US PRT Market"

11) Legal & General America(2024), "Pension Risk Transfer Monitor"; Pensions&Investments, "THE PLAN SPONSOR'S GUIDE TO PENSION RISK TRANSFER"

12) Life Risk News(2024), "Still Plenty of Capacity for Growth in Robust US PRT Market"